■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15-138.
http://doi.org/10.17948/kcs.2019..83.115

【특집1: 조선시대 유서(類書)의 지식학적 검토】

조선 類書類 문헌의 儒家 經典 이해*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강경현(姜卿顯)**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儒家 經典에 대한 확장적 이해의 흐름
3.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博學的 經學 이해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유서류 문헌의 출현은 "지식의 축적"과 "박학 지향"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축적되어온 방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가 경전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 유서류 문헌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초점을 맞추어, 유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박학적 관심 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나아가 그것이 주자학적 경전 연구가 심화되고 비판적으로 극복되고 있던 조선 학계에 어떠한 형태의 진전된 유가 경전 해석의 시야를 열어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구성된 유가 경전 관련 지식은 중국과 조선의 주자학적 경전 이해를 경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KFR-1230007).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학사의 일부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상대화시키는 지평을 열어준다. 19세기 초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유가 경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유서류 문헌, 지식, 박학, 유가 경전, 경학사.

1. 들어가는 말

『四庫全書』의 類書類는 "여러 전적에서 집록한 자료를 類門에 따라 분류하고 배열하여 검색 및 인용에 편리하도록 만든 공구서"[1]를 의미한다. 즉, 기본적으로 類書類 문헌은 기존의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서는 『사고전서』에서 子部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經史子集의 내용을 두루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四部 가운데 어느 하나에 배속시키기가 어렵다.[2]

이와 같은 유서류 문헌의 특성은 조선 후기 "博學"의 흐름과 쉽게 만나게 된다. 이 교차점에 『五洲衍文長箋散稿』가 있다. 五洲 李圭景(1788-185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조선의 대표적 유서류 문헌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박학지향" 사조의 선명한 출현을 읽어낼 수 있는 책으로 평가된다. 그 특성에 걸맞게 『오주연문장전산고』는 1,416개에 달하는 여러 항목을 통해 19세기 당시의 조선을 그려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담아놓고 있다. 그 결과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농업, 과학사, 사상사, 국문학, 한시사, 경제사, 미술사, 서양 인식, 생활사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4]

---

1) 張舜徽,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옮김, 『사고전서 이해의 첫걸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346면 해설 부분.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總敍」에서는 유서류 문헌에 대해 "典故를 인용하여 분류한(隸事分類)" 책이고 譜錄, 雜家, 小說家와 함께 "곁에 두고 두루 참고하는(旁資參考)" 도서라고 설명한다. 「子部總敍」, 『四庫全書總目提要』. "隸事分類亦雜言也, 舊附於子部, 今從其例, 故次以類書. (…) 以上四家皆旁資參考者也."

2) 「類書類敍」, 『四庫全書總目提要』. "類事之書兼收四部, 而非經非史非子非集, 四部之內乃無類可歸."

3) 이규경의 생몰 연대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주영하 외 지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생활 문화』, 돌베개, 2005, 32면. 참고로 이규경의 몰년을 1863년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허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 14면 참조.

한편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채택하고 있는 "辨證"이라는 형식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수록된 지식이 변증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그 연원에서부터 분석해오는 형태를 띠도록 한다. 그 결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지식은 변증 대상으로서의 개별 주제와 관련하여 19세기 조선에 유통되고 있던 지식을 다수 취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린 방대한 분량의 지식은 일차적으로 주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박학적 면모를 보이지만, 동시에 단일한 개별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박학 지향의 특성을 드러낸다.[5] 이는 결국 해당 주제에 관여되어 있는 지식의 변화 양상,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의 유입이나 그로 인한 평가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박학의 관점에서 작성된 대표적 유서인 『오주연문장전산고』가 儒家 經典 관련 지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으며 이곳의 학술적 理想을 담아내고 있는 유가 경전에 대해서, "박학 지향"과 "지식의 축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지식을 구성해내고 있는지 검토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400개가 넘는 관심 주제의 다양함과 해당 주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담겨 있는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유가 경전이라는 특정 지식을 다루면서 박학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투영시켜 관련 지식을 집적해내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통해 유가 경전에 대한 박학적 접근이 유가 경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오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조선의 학술을 조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비평을 남긴다.

---

4)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2-10면 참조.

5)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유서는 다양한 지식을 수집하고 재가공하며 분류하여 검색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료 휘편의 성격을 지니지만, 특정한 관심과 맥락에 따라 지식에 대한 고증과 변증 및 창의적인 지식의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백과전서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참조할 수 있다. 박종천, 「조선시대 類書류 연구방법론과 디지털인문학」, 『한국실학연구』 제35호, 한국실학학회, 2018, 7면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儒賢의 학문은 性理를 위주로 하여 그것에만 종사하거나 禮說에 힘쓰는데, 經學에 대해서는 禮學처럼 독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禮書가 가장 많다.[6]

그가 말한 "經學"은 무엇이었기에 학술과 교육은 물론 제도의 영역까지 유가 경전에 입각하여 구성해내고자 했던 조선의 유학자들이 미진했던 분야로 경학이 거론된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조선 후기 학술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준 하나의 중요한 흐름인 박학의 관점에서 경학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규경이 조선의 경학에 대해 흡족치 못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만 19세기 초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집적된 경학 지식에서 변화의 지점과 그 함의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조선의 유가 경전 이해가 明代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으로 종합된 주자학적 四書五經 체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儒家 經典에 대한 확장적 이해의 흐름

1) 四書·五經 연구의 심화

조선 학계의 유가 경전 이해는 1415년 明에서 찬수되어 1419년 수입된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7] 釋義, 口訣, 諺解 등 번역 층위의 작업에서부터 시작된 조선의 유가 경전 연구는 점차 朱熹(1130-1200)의 경전 해석에 대한 완벽한 독해라는 지향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다. 보다 많은 지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주자학적 경전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 학술계는 사서오경과 관련한 주희의 여러 저술들로 범위를 확장한다. 예를 들어 『論語』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정합적인 접근을 위해 그들은 『論語集註大全』에서 출발하여

---

6) 李圭景, 「家禮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我東則儒賢之學, 或以性理爲主而專事者, 或以禮說爲務者, 而經學則又不如禮學之篤, 故禮書最多."

7)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동방학지』 제63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25-27면 참조.

주희의 『論語或問』, 『論語精義』는 물론이고 『朱子大全』과 『朱子語類』 및 『延平答問』까지도 함께 검토한다.[8]

이러한 학문적 흐름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사례는 宋時烈(1607-1689)에게서 보인다. 유가 경전과 관련해서 그의 목적은 주희 경전 해석의 본의에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다만 그의 관심은 주희의 문헌에 한정되지 않는다. 1678년, 朴世采(1631-1695)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시열은 주희가 직접 주석을 남긴 四書와 『詩』, 『易』을 중심으로 하여 『十三經注疏』 및 주희의 문집과 어록, 그리고 北宋代 二程과 張載의 해석을 한데 모으는 기획에 대해 말한다.

> 제 뜻은 그렇습니다. 程朱 이후 여러 학자들의 설이 매우 많지만 그다지 발명할 것은 없고, 혹 정주의 본지를 도리어 잃은 경우가 있어도 그 잘못을 후인들의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이 十三經 古註를 얻어서 지금 볼 수 있는 四書와 『詩』, 『易』의 주석 아래에 수록하여 정주가 취사한 뜻을 드러내고, 또 程子와 張子의 全書와 『朱子大全』, 『朱子語類』 중의 여러 설을 취하여 세 선생의 同異 및 세 선생의 초년과 만년 입장의 同異를 보인다면, 학자들에게 큰 보탬이 있었을 것인데 실행할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9]

유가 경전 이해 차원에서 보았을 때 송시열은 분명 주희가 직접 주석을 남긴 사서와 『시』, 『역』에 주목하지만, 북송대 이정과 장재의 해석 그리고 古註라고 표현된 『十三經注疏』로까지 관심을 확장시킨다. 송시열이 유가 경전에 대한 여러 해석들로까지 관심을 확대한 것은 주희의 주석을 그 이전 해석과 비교 검토했을 때 경전 해석의 변화 지점을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 방법은 주희의 사유궤적을 추적함으로써[10]

---

8) 강경현, 「『논어』 "오여회언(吾與回言)"장(章)에 대한 조선의 주자학적 접근」, 『태동고전연구』 제40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8, 117-128면 참조.

9) 宋時烈, 「答朴和叔【戊午九月十九日】」(1678), 『宋子大全』 권67. "鄙意以爲程朱以後諸家說, 不勝其多, 而非但無甚發明, 或有反失程·朱本旨者, 則其誤却後人眼目, 有不可知. 嘗欲取十三經古註, 載於四書·『詩』·『易』見行註釋之下, 以著程·朱取舍之意, 而又取程·張全書·『朱子大全』·『語類』中諸說, 以見三先生同異及三先生初晩所見之同異, 則於學者當有大益, 而事力不逮, 未知執事能辦此事否."

10) 서대원, 「尤庵 宋時烈 先生의 理學 硏究에 대한 一考察—年譜 연구에 중요성」, 『동서철학연구』 제48호, 한국동서철학회, 2008, 175면 참조.

그의 입론 취지와 정론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1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희의 경전 주석이 성립되는 데 있어 실제로 주희가 참조했고 주희에게 영향을 끼쳤던 해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희 유가 경전 해석의 정립을 유가 경전 해석사 층위에서 조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더 나아가 송시열은『四書集註』성립 이후『四書大全』편찬 이전까지 산출된 사서 해석서에 대해서도 문헌 입수의 노력을 보인다.

> 『四書大全』에 수록된 여러 학자들의 설 가운데 倪氏의『中庸』만을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어 보았지만 긴요한 곳은 전혀 없고 그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않고 돌려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기운이 경솔하고 뜻이 작아 마음이 번잡함을 참지 못했던 까닭이어서, 되돌아보니 후회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경서의 小註를 보면, 雲峯 胡氏・新安 陳氏・慶源 輔氏・雙峯 饒氏의 경우 분명 각각 하나의 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皇朝(明)에서 찬집할 때에 정수만을 모아 실어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보관해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12]

송시열의 관심은『사서대전』소주에 수록된 주희 이후 송원대 학자들의 언설의 원 출전으로도 향한다. 인용문에서 거론된 인물로 한정하더라도 송시열이 이 시기 입수하고자 했던 문헌은 倪士毅(1303-1348)의『四書集釋』, 胡炳文(1250-1333)의『四書通』, 陳櫟(1252-1334)의『四書發明』, 輔廣(南宋)의『四書纂疏』, 饒魯(1194-1264)의 글 등이었을 것이다. 송시열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자학적 경전 해석이라는 지향 속에서 그에 대한 독해를 심화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유가 경전 연구가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

11) 박세채가『십삼경주소』를 활용하면서도 "務博"에 대한 경계를 거두지 않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朴世采,「答李壽翁【世龜○癸酉十二月十七日】」(1693),『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권10. "去夏得明齋書, 云壽翁來訪, 將欲用力於『十三經注疏』, 不勝望洋之歎, 鄙答以恐亦涉於文士務博之風, 蓋相阻至此, 自不得不然也."

12) 宋時烈,「答朴和叔【戊午九月十九日】」(1678),『宋子大全』권67. "『四書大全』中諸家之說, 惟倪氏『中庸』, 少時借得於人家, 看來無甚緊要, 而徒爲纏繞, 故未卒業而還之, 至今思之, 此殆氣輕志小, 心不耐煩之致, 追悔不能已. 大抵以今見行經書小註觀之, 則如雲峯・新安・慶源・雙峯必各有成書, 故皇朝纂集時裒粹而載錄之, 未知此等書流出於東方而有藏置者否."

안에는 분명『사서집주』성립 과정과『사서집주』해석사, 곧『사서대전』성립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2)『四書·五經大全』에 대한 비판적 극복

조선에서『사서대전』과『오경대전』을 중심에 놓고 있으면서도 송시열의 기획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흐름 역시 발견된다. 이는 사실상『사서대전』과『오경대전』을 명대 경전 이해의 산물로 보면서 주희의 경전 해석과는 구분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해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李瀷(1681-1763)과 安鼎福(1712-1791)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익과 안정복이 공히『사서대전』과『오경대전』을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의 지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 먼저 이익이『小學』, 四書,『心經附註』,『近思錄』, 三經에 대한 疾書를 작성하면서 쓴 서문 가운데「孟子疾書序」와「大學疾書序」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朱夫子의『孟子集註』가 나오자 많은 말들이 마침내 잠잠해졌고, 해외에 전파되어 모두 같은 길을 따라 하나가 되었으니, 성대하다. 비록 그렇더라도 [『맹자』의 뜻을] 드러낸 여러 학자의 설이 숲에 나무가 빽빽하고 바다에 물결이 무수히 일듯 다양하고 분분한 가운데 반드시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永樂 연간에 胡廣의 무리가 하찮은 학문으로 몸을 움직여 취사한 것이 근거가 없었던 탓에 주석의 뜻이 혹 매몰되고 잘못되는 결과를 면치 못하였다.『疾書』짓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13]
>
> 『大學章句大全』의 경우, 후대 학자의 쓸데없는 말과 잘못된 주석을 잡다하게 모두 채록하여 요점을 찾을 수 없고 의문과 혼란만을 야기하였으며, 주자의 명확한 가르침과 적실한 요결을 반 이상 수용하지 않아서 초학자에게 이러한 의론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였다.[14]

---

13) 李瀷,「孟子疾書序」,『星湖先生全集』권49. "至朱夫子『集註』出, 而羣言遂定, 播之海外, 擧同軌而一之, 盛矣哉. 雖然發揮諸子, 林藁海滾, 未必皆中, 而永樂胡廣輩起身蔑學, 去取無據, 使箋釋之意, 或未免湮埋轉譌, 則『疾書』之作, 胡可已也."

14) 李瀷,「大學疾書序」,『星湖先生全集』권49. "若夫『章句大全』, 則後儒之漫辭訛箋, 雜然而並採, 不見有緊要, 徒惹惑亂, 至朱子明訓的訣, 太半不收, 使蒙士曾不知有此箇議論."

이익의 비판은 胡廣 등 명대 학자들이 『맹자집주대전』과 『대학장구대전』을 편수하며 수록한 小註로 향한다.[15] 주희의 『맹자집주』와 『대학장구』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편집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익 자신의 경전 해석을 새롭게 개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는 맥락에서 제시된 발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주희와 명대 경전 해석을 구분하려는 시선이 녹아 있다.

한편 안정복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유가 경전을 四書와 五經 아홉 종으로 한정지은 것이다.

> 明 이후 五經으로 정하여, 『周禮』와 『儀禮』, 『公羊』과 『穀梁』 두 傳을 學官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옛날 사람이 남겨진 경전을 안고 미약해진 학문을 붙들던 마음과 같지 않다. 대개 전부터 士子들이 四傳을 익히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교육을 주관하던 신하가 그 사사로운 판단을 따랐는데, 결국 역대로 전해오던 경전을 버리고 배우지 않는다. 구차하게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벼슬을 구하니, 온 천하가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저버리게 함에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經學이 날로 쇠퇴해 가고 인재가 날로 저하되어 가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 생각건대 지금 顧氏의 이 말을 보니, 明儒들의 『大全』 찬집은 儒門의 큰 하자가 됨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드러내 동지들에게 보인다.[16]

명초 『사서대전』와 『오경대전』의 편수에서 안정복은 『주례』와 『의례』 및 『춘추공양전』과 『춘추곡량전』의 배제에 주목한다. 유가 경전이 유가의 理想을 구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이 유가 理想에 대한 발전적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사서와 오경에 포함되지 않는 『주례』와 『의례』 및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을 통해 발견되는 지평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17] 어떻게 보면 안정

15) 물론 대전류 문헌의 小註에 대한 검토와 비판은 李滉과 柳希春, 奇大升, 李珥 등 16세기에 활동한 적지 않은 학자들에게서부터 발견되며, 宋時烈과 金昌協(1651-1708)에게서도 확인된다.

16) 安鼎福, 「經書疑義【條例不多, 諸經合附】」, 『順菴先生文集』 권11. "自明以後, 定爲五經, 而『周禮』·『儀禮』·『公』·『穀』二傳, 幷不列於學官, 與古人抱遺經扶微學之心不同. 盖自前士子以四傳之難習, 而主教之臣循其私意, 遂擧歷代相傳之經典, 棄之而不學, 苟便己私, 用之干祿, 率天下而欺君負國, 莫甚於此. 經學日衰, 人才日下, 職此之由也. (…) 按, 今見顧氏此說, 則明儒『大全』之輯, 未免爲儒門大疵, 玆表出之, 以示同志者."

17) 사실 주희의 입장에서도 『周禮』와 『儀禮』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희 예학의 결정판인 『儀禮經傳通解』는 『의례』를 근간으로 三禮書를 재편한 것이다. 또한 『周禮』는 柳馨遠(1622-1673)의 『磻溪隧錄』과 연관되는데, 17세기 이후 조선의 유가 경전 인식과 예학적 저술 출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은 대전류 문헌의 小註 뿐만이 아니라 사서오경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맥락 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안정복의 비판에서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顧氏의 말은 바로 淸의 顧炎武의 발언[19]이라는 사실이다.[20] 사서오경 체제에 대하여 그것이 明儒에 의해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판단에는 고염무로 상징되는 청대 문헌과 사유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서・오경대전』을 기반으로 주자학적 유가 경전 이해로 나아가고자 했던 조선의 주자학계는 기본적으로 사서오경에 대한 주자학적 해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들로 관심을 넓혀갔다. 그러한 관심은 주희의 경전 주석서 성립을 기준으로 하여 주희 이전 시기 유가 경전 주석인 『십삼경주소』와 북송대 해석은 물론 주희 이후 『사서・오경대전』 성립까지 산출된 송원대 해석서로 확장된다. 그와 함께 조선에서는 『사서・오경대전』 수록 소주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서오경이라는 체제 자체를 비판하고 극복해 내려는 입장까지 개진된다.[21] 물론 이 두 흐름은 조선의 주자학계에서 보인 명대 『사서・오경대전』에 대한 반향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8) 기존 연구에서는 『詩經』에 대한 안정복의 독법을 통해 주희의 해석체계를 토대로 두면서도 일정한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는 측면을 읽어내면서, "유학의 본원을 중시하면서도, 경전에 대한 경색된 해석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자의 해석을 넘어 경전 자체의 문맥을 우선시하려는 성호의 학문방식을 계승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본원을 중시하면서도, 주자의 해석을 절대시하려는 송시열계열의 유학인식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유학 탐구의 관념성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과 동시에 유학의 본원을 충실히 확립하려는 문제의식이 일정한 긴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조선의 "17세기 주희의 해석체계를 절대시하는 학문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극복"이라고도 평가된다. 이봉규, 「順庵 安鼎福의 儒敎觀과 經學思想」, 『한국실학연구』 제2호, 한국실학학회, 2000, 73면, 88면 참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사서오경 체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으로 본다.

19) 안정복이 긍정한 고염무의 발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顧炎武, 「書傳會選」, 『日知錄』. "愚嘗謂自宋之末造, 以至有明之初年, 經術人才, 於斯爲盛, 自八股行而古學棄, 『大全』出而經說亡, 十族誅而臣節變. 洪武永樂之間, 亦世道升降之一會矣."

20)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익 역시 고염무의 설을 따른 것이라고 평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도 이익과 안정복의 『사서대전』, 『오경대전』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호, 「성호의 僭說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제50집, 한국고전번역원, 2017, 271-272면 참조.

21)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제2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18-29면 참조.

3) 淸代 학술의 유입과 經學史 인식

사실 박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유가 경전 이해를 조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은 十三經이라는 더 많은 수의 경전 체제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四書三經 혹은 四書五經 체제로 좁혀놓고 있는가일 것이다. 송시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사서삼경이나 사서오경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주자학적 해석과 경전 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보다 많은 문헌을 취합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주희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안정복을 통해 엿보았듯, 사서오경 체제가 사실 명대 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판단에서 보면, 주희의 경전 해석은 긍정하면서도 사서오경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유가 경전 체제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조선 후기 소위 박학 고증적 태도에 입각한 대표적 저술을 남긴 李德懋(1741-1793)와 成海應(1760-1839)에게서는 보다 선명한 변화의 면모가 발견된다. 유가 경전 해석 역사와 관련된 지식을 취합함으로써, 십삼경 체제에 대한 인식과 경학사에 대한 고려가 확연히 등장하는 것이다.[22]

예를 들어 이덕무의 경우 『靑莊館全書・盎葉記』「羣經字數」에서 여러 경전의 글자 수를 세어놓은 글을 다수 수록하면서, 七經, 九經, 十三經으로 정립되어온 역대 유가 경전 분류 체계의 변화를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23] 또 「經解目」에서는 역대 주석서를 "易(44종), 書(19종), 詩(12종), 三禮(12종), 春秋(33종), 孝經(4종), 論語(2종), 孟子(3종), 四書(8종), 總經解(7종)"로 분류하면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徐乾學의 『經解』, 즉 『通志堂經解』를 인용하고 있다.

성해응은 『硏經齋全集外集』에서 유가 경전별 주요 주제에 대해 역대 입장들

22) 여기서 기존 유서류에서 경학사에 대한 관심이 선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유서류 문헌을 놓고 보았을 때, 유가 경전에 대해 『지봉유설』(1614, 규장각본)은 "經書部: 易, 詩, 書, 禮記, 春秋, 周禮, 論語, 孟子, 中庸, 大學"으로 분류하고, 『성호사설유선』(규장각본)에서는 "經書門: 易, 詩, 書, 儀禮, 周禮, 禮記, 春秋, 左傳,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家禮, 諸子, 雜書"로 나누고 있지만 경학사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을 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경학사에 대한 청대 지식의 유입을 결정적 요인으로 바라보면서 서술한다.

23) 여기에 인용된 청대 인물은 다음과 같다. 顧炎武, 徐緘(?-1670), 王崇簡(1602-1678), 陸隴其(1630-1692)

을 비교하고 있는데, “易類, 書類, 詩類, 春秋類, 禮類, 庸學類, 孝經類, 總經類”라는 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글은 『研經齋全集外集』 권22, 23의 「総經類・十三經考上・下」이다. 이 글에서 성해응은 漢代 “孔壁古本”, “河間獻王所獻本”, “劉向父子校正本”, “熹平石經本”부터 唐의 “九經正義”, “開成石經本”, 宋의 “咸平二年校正本” 및 “宋儒諸本”, 明代 “永樂大全本”까지 시간순으로 새로운 판본과 주석의 출현에 주목하여 유가 경전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으며,[24] 按說도 함께 덧붙이고 있어 사실상 중국 경학사에 대한 성해응의 견해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한편 이덕무와 성해응의 경학 인식에는 청대 문헌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이덕무의 경우, 徐乾學과 顧炎武가 비중 있게 인용되며, 성해응의 경우 『四庫全書總目』과 徐乾學, 翁方綱, 顧炎武, 閻若璩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의 십삼경과 경학사에 대한 인식 이면에 십삼경과 “名物度數”로 상징되는 漢學, 사서와 “心性理氣”로 상징되는 宋學의 대립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성해응과 이덕무는 한학과 송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비시키고 있는데, 성해응의 경우 한학에 더 경도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며,[25] 이덕무는 기본적으로 사서 및 心性理氣로 상징되는 주자학적 유가 경전 이해의 의의를 따른다고 평가된다.[26]

---

24)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물과 문헌은 한대부터 청대까지 매우 다양한데, 청대로 한정해서 보면 徐乾學, 翁方綱, 顧炎武, 閻若璩 그리고 『四庫全書總目』이 인용된다.

25) 성해응의 경우 “漢學 중심적 漢宋折衷論”이라고 명명되면서도 동시에 “義理之學에 장점을 가진 송학의 성과를 잘 이해하였고 방법론으로서 한학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했다는 평가도 내려진다.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 일조각, 1996, 92면, 100면 참조. 이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겠지만, 한대 유학의 경전 해석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던 조선의 학자들에 대한 성해응의 비판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成海應, 「外集序」, 『研經齋全集』 권13. “十三經之名始備. 然經義之盛衰, 從時俗之所趁捨. 宋時洛閩之學, 大昌于時, 人主又尊尙之. 皇明永樂中, 罷『周禮』・『儀禮』・『孝經』・『春秋』三傳, 獨以四子五經, 制詔頒行. 【『易』・『詩』・『書』・『禮』・『春秋胡氏傳』・『論語』・『孟子』・『中庸』・『大學』】蓋慮其脫遺影響之文, 疑誤來者, 而務歸雅正, 意固善矣. 東方之學者, 不識推而通之, 輒斥漢儒專門之學, 漢儒烏可輕也.”

26) 한학과 송학을 名物度數와 心性理氣로 대비시키는 이덕무의 이해는 다음을 참조. 李德懋, 「大學」, 『靑莊館全書・禮記臆』. “漢唐之儒詳於名物度數, 至於心性理氣, 則全然蔑如也. 宋元之儒詳於心性理氣, 至於名物度數, 則或有闕如也. 讀經書者, 漢唐注疏, 宋元訓詁, 不可偏廢也.” 이를 통해 이덕무는 “송학의 義理

이처럼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박학 지향의 태도로 중국 경학 관련 지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함으로써 공통된 하나의 관점이 얻어진다. 바로 중국 경학사에 대한 지식의 집성은 결과적으로 程朱의 주석서와 『오경대전』, 『사서대전』을 다른 여러 주석서들과 함께 나열해 놓음으로써 경학사적 지평 위에서 조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가 경전 이해의 역사는 주자학적 사서오경 체제와 함께 시기적으로 먼저이고 수적으로 더 많은 경전과 주석을 포괄하여 정리할 수 있는 십삼경 체제를 고려하게 된다.

요컨대, 18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주자학적 사서오경 체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십삼경 체제를 고려하며 수많은 경전 주석서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놓고 조망하는 시야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시기 조선의 십삼경 체제에 대한 선명한 인식에는 청대 학술과 문헌의 유입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주자학적 유가 경전 해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 내부에서 전개되어온 문제의식의 심화 과정, 예를 들어 『사서대전』, 『오경대전』에 대한 연구의 심화와 비판적 극복과 같은 선행적 흐름이 바탕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적으로 개진해낼 수 있는 유가 경전에 대한 재해석의 층위를 열어주는 계기 역할을 한 것으로서, 박학의 지향 위에서 진행된 청대 동아시아 경학사 지식에 대한 취합은 간과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유가 경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지식이 유통되던 상황 위에서 당대의 경학 지식을 체계화한다.

3.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博學的 經學 이해

1) 經學 지식의 집적과 체계화

이규경은 조부 이덕무와 마찬가지로, "心性理氣"의 학문을 중심에 놓으면서 "名物度數"의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선을 견지한다. 이규경은 이를 "性

를 골간으로, 훈고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은 고증학을 통해 밝혀진 한학의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청대 학술을 보완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된다. 장동우, 「李德懋의 禮 認識과 그 理念的 志向」, 『한국실학연구』 제10호, 한국실학학회, 2005, 208면 참조.

命義理"와 "名物度數"라는 말로 표현하는데,[27] 각각이 유가 경전의 이해와 결합되었을 때 宋學과 漢學, 나아가 사서오경 체제와 십삼경 체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그들의 유가 경전 해석에 대한 입장은 주자학적 경전 해석의 미비점을 십삼경 및 한학의 성과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는 유사성을 갖는다. 물론 "名物度數"와 "象數之學"에 대한 이규경의 주목은 "전통적 의미의 '명물도수지술'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사상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지만,[28] 그것이 유가 경전 이해의 층위에서 송학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 나아가 한학으로의 회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29]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글은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십삼경주소』와 여러 주석가들의 경전 해석(주석서), 그리고 『오경대전』과 『사서대전』이 변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경학사 서술 부분이다. 여기서는 중국 고대 三皇五帝로부터 시작하여 明代까지의 전반적인 중국 경학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三墳, 五典, 八索, 九丘라는 서명만 전해지는 중국 고대의 경전에서부터 六經의 성립과 焚書, 그리고 五經, 七經, 九經, 十經, 十二經 및 十三經과 五經四書大全의 구성과 변천 과정 등의 관련 내용을 시간순에 따라 정리하면서, 經의 의미나 주석서 序文의 중요성과 같은 주제들도 중간중간 함께 다루고 있다. 사실상 이것이 소위 중국 경학사

27) 李圭景, 「序」, 『五洲衍文長箋散稿』. "所謂名物度數者, 未嘗間斷, 而其精蘊之奧旨, 則無人發明, 類同堙沒不傳矣. 逮于皇明之末造, 中土人士駸駸然入于其中, 打成習尙, 以不知此道爲恥. 如徐玄扈·王葵心之流, 崛起絶學之後, 多所啓發, 創始象數之學, 名物度數, 煥然復明於世. 從玆以後, 崇門名家稍稍出焉. 大抵名物度數之術, 縱不及性命義理之學, 亦不可偏廢不講, 視若異端也."

28)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개념과 소통』 제17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6, 139-141면 참조. 여기서는 "실용적 학문을 추구했던 19세기 지식인 이규경에게는 '격치'가 곧 '박물'이고 '박물'을 추구하는 과정이 곧 '명물도수지학'"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시대의 지적 풍토였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9) 이규경이 기본적으로 "朱子系統의 性理學者"임을 보인 연구로 다음을 참조. 윤사순, 「李圭景 實學에 있어서의 傳統思想」, 『아세아연구』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18-219면. 여기서는 『中庸』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尹鑴는 비판하고 李光地는 승인하는 이규경의 입장을 통해 그에게서 "朱子學에의 標榜"을 읽어내고 있다.

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이덕무와 성해응이 보인 경학사 인식의 면모와 연속적 이해의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역대 경학 관련 문헌을 "十三經"과 "五經四書大全"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부분이다. "十三經" 항목에서는 열 세 개의 경전별로 『십삼경주소』 성립까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뒤에 중국과 조선의 대표 주석서 목록을 덧붙여 놓았다. "五經四書大全" 항목에서도 아홉 개의 경전별로 각각의 구성과 관련 정보를 싣고 있다.

중국 경학사 전반에 대한 서술과 『십삼경주소』 및 『오경·사서대전』의 성립과정 및 구성, 그리고 역대 주석서의 목록화라는 차원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은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학사를 다루면서 사서오경 체제를 반영한 경학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학적 경전 해석의 의의를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경학사를 십삼경과 사서오경 체제로 양분하여 바라보는 시야를 따라 경학사와 경전 주석서들을 체계화시켜 개별 경전의 성립과 해당 주석서들을 목록화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경학사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에는 여러 청대 문헌이 인용된다.[30] 이는 18-19세기에 걸쳐 조선으로 유입된 경학 관련 청 문헌이 굉장히 많았음을 뜻하기도 하면서,[31] 한편으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유가 경전 지식이 청대 학술과 상당히 친연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대 문헌에 대한 인용이 양적으로 증폭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청대 학술의 이규경

30) 淸 高宗(1711-1799) 『御製集』; 『經傳考』(*朱彝尊 『經義考』의 잘못인 듯하다.); 閻詠(18세기)의 글; 顧炎武(1613-1682) 『日知錄』; 「金石文字記」; 朱彝尊(1629-1709) 「唐國子學石經跋」; 「寄禮部韓尙書書」; 「跋大戴禮記」; 徐乾學(1631-1694) 『經解』; 『憺園集·禮部頒行房書序』; 「新刊經解序」; 趙吉士(1628-1706) 「寄園寄所寄」; 毛奇齡(1623-1713) 「經義考序」; 邵長蘅(1637-1704)의 글; 「靑門集·策經義」; 申涵光(1618-1677)의 글; 李光地(1642-1718) 『榕邨集』; 李紱(1673-1750)의 글; 徐緘(淸) 「讀書說」; 高士奇(1645-1704) 「天祿識餘」.

31)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이는 청대 학술의 영향은 다음의 연구 참조.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153-163면. 이에 따르면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지역적으로 江南 3省(江西, 江蘇, 浙江) 및 上海 출신 작가의 문헌이 60%를 상회하며 인용되고, 어찬 편찬물 인용의 비중이 높으며, 顧炎武의 『日知錄』이 총 144회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고 한다.

에 대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32] 나아가 이규경의 관심은 유가 경전의 卷數, 字行數目[33]은 물론이고 등장인물 수[34]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미치고 있는데, 박학적 지향 속에서 유가 경전에 접근하고 있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글에서 緯書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경학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 緯書를 포함시킨 것은 "고금의 世道가 昇降했던 것을 남기고자" 해서이다.[35] 참위설의 등장과 쇠퇴도 治亂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2) 朝鮮 經學의 특징과 평가

박학을 지향하는 경우, 축적하고 있는 지식 정보의 양적 차이는 분명 발전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성해응보다 30여 년 뒤의 인물인 이규경이 더 다양한 종류의 청대 문헌을 더 많은 분량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발전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보다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차이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조선의 경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東國, 즉 고려와 조선에서 산출된 유가 경전 해석서에 대한 분류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한다. 사실 이 목록화는 이덕무가 「經解目」에 인용해놓았던 서건학 『經解』의 분류 체계를 변형하여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선은 경학 지식에 대한 주변적 수용적 위치가 아닌, 하나의 해석적 지

32) 참고로 이규경은 朱彝尊에 대한 강한 찬동의 말을 남기기도 한다.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清朱彝尊『經義考』, 其論醇正, 可作千古名言."

33)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愚今謹記經書卷數字行者, 亦取鄭康成記群經簡策尺寸之義也. (…) 古之經師, 非徒訓詁之學而已, 兼記簡策長廣、字行數目, 以爲日後考據者, 於後學何等貽惠."

34)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愚按, 經傳中人物亦不可不知其數. 『易』、『書』、『詩』、『禮記』、『春秋』所載人物共三千六十人, 合而去其重者可三百人, 則二千七百餘人也."

35)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愚欲存古今世道之昇降, 取七緯之見於『通考』者, 參附緖經之下, 以爲考辨焉." *『通考』는 馬端臨(1254-1323)의 『文獻通考』이다.

평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서건학의 『經解』에서는 중국의 역대 유가 경전 주석서를 "易, 書, 詩, 三禮, 春秋, 孝經, 論語, 孟子, 四書, 總經解"로 구분하여 목록화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여기에 "十三經"이라는 표제어를 붙인다. 그리고 "五經四書大全"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십삼경과 오경사서 체제로 중국과 조선의 주석서를 정리한다. "十三經" 항목에서는 다시 각 경전별로 『십삼경주소』 성립까지의 제반 사항에 대한 소개 아래에 "諸家經解"와 "補遺諸家經解", "續補"[36]를 통해 중국의 주석서를 나열해 놓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東國諸家經解" 항목을 신설하여 고려와 조선의 주석서들을 정리한다.[37] "五經四書大全"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경전별로 『오경사서대전』 관련 사항을 설명한 뒤, 중국과 고려, 조선의 주석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목록화하여 싣고 있는데, 다만 『중용』과 『대학』을 제외한 일곱 책은 십삼경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주석서들을 중복해서 적지는 않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東國의 주석서 57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고려 문헌 2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선의 경전 해석서이다. 특히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이러한 "東國諸家經解"들을 중국의 역대 주석서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유가 경전 이해의 산물은 중국 경학사의 지평 위에서 함께 조망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로부터 조선의 경학적 저술이 상당히 적다는 판단 역시 어렵지 않게 내려지게 된다. 중국의 경학 관련 주석서는 모두 639종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이규경에게 파악된 고려와 조선의 문헌은 그에 비해 10%가 채 되지 않는 57종이 있을 뿐이다.[38] 이것은 이규경이 조선의 경학을 "독실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주요

---

36)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凡諸家補遺、續補遺經解竝隨得隨補, 故世次每多顚倒, 卷數更不得備書, 但取其名目而已."

37)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此是我東諸賢經解, 然隨其見聞, 任自箚錄, 故若是未備, 且不拘年代, 但取書目而已."

38) 이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88년부터 1998년에 걸쳐 조선조 한국경학자료를 회집한 『한국경학자료집성』에 400명이 넘는 인물과 1,200종이 넘는 경학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영호・함영대, 「디지털 경전주석학의 모색—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38면 참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한 가지 조선 경학의 특징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언해와 구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五經四書大全諺解口訣正音"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語音이 중국과 완전히 달라 경서의 句讀도 우리나라 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라 弘儒侯 薛聰이 方言으로 9경을 풀이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 전해지지 않게 되자, 고려의 諸賢들이 經傳을 읽으면서 口訣을 두었는데, 조선의 앞선 학자들이 대부분 전수받았다.39)
>
> 眉巖 柳希春의 『經筵日記』에서 "경서의 諺釋은 叅議 柳崇祖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했다. 栗谷 선생 李珥의 『四書諺解』 13권과 崔岦의 『周易口訣』이 있는데 대체로 참고할 만하다.40)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조선에서 간행된 구결, 언해류 문헌에 주목함으로써 신라 때부터 이어진 유가 경전 번역의 문제가 16세기 조선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조선의 경학을 논하려고 하는 경우, 『오경대전』과 『사서대전』의 수용 이후 그것에 대한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조선의 곤란처였음을 알게 해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이와 같은 조선으로의 관심은 한편으로 조선의 경학이 외국어로 된 중국 경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측면으로 인해 그것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수록된 조선 경학 관련 지식들은 조선 경학에 대한 이규경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 경학의 빈약함을 확인하게

---

39)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我東語音旣與中原判異, 則經書句讀, 不可不以東音解釋. 故新羅弘儒侯薛聰以方言解九經. 然世遠不傳, 高麗諸賢, 讀經傳有口訣, 而本朝先正諸儒, 或多授受."

40)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柳眉巖希春『經筵日記』, 經書之諺釋, 自柳參議崇祖始, 栗谷先生李珥有『四書諺解』十三卷, 崔岦有『周易口訣』, 蓋可考者也." 이어서 다음의 책들을 제시한다. 『周易大全諺解』五卷, 『本義口訣』二卷; 『尙書大全諺解』五卷, 『書傳正音』二卷; 『毛詩大全諺解』五卷, 『詩傳正音』三卷; (『春秋大全』無諺解) 『春秋正音』二卷; (『禮記大全』無諺解)『禮記諺讀』六卷; 『論語大全諺解』四卷, 『論語正音』二卷; 『孟子大全諺解』七卷, 『孟子正音』三卷; 『中庸大全諺解』一卷, 『中庸正音』一卷; 『大學大全諺解』一卷, 『大學正音』一卷.

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규경은 십삼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발언을 남긴다.

> 우리나라에는 십삼경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름만을 취할 뿐이어서,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곳에 묶어 두어 좀이나 쥐가 조금씩 먹어 들어가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41]

이상 이규경의 조선 경학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주석서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의 문제이며, 마지막은 십삼경에 대한 무관심이다. 아마도 이것이 조선의 경학에 대해 "독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경학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이라는 미묘하게 서로 다른 이규경의 평가는 박학의 지향 위에서 조선과 중국을 아울러 취합된 경학사적 지식을 통해 발견될 수 있었던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3) 博學의 관점에서 본 儒家 經典

박학의 관점에서 경학 관련 지식을 취합함으로써 유가 경전은 경학사적 인식 위에서 조망된다. 예를 들어 주자학을 중심으로 유가 경전을 해석하던 조선의 학술에 『오주연문장전산고』와 같은 시선은 유가 경전 이해의 역사 속에서 주희를 중국 경학사에서 유의미한 경전 해석을 남긴 걸출한 경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鄭康成[鄭玄]은 漢儒 가운데 집대성한 분이고, 朱夫子[朱熹]는 宋儒 가운데 집대성한 분이다. 후대 유학자의 표준과 모범이 되어 감히 달리 의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두 선생뿐인데, 『주소』의 오류와 『집주』의 흠을 이유로 잘못이라 여기면서 전체의 글을 폐지하려는 자는 大義와 本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니, 무엇인들 말하기에 충분하겠는가.[42]

41)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我東則能知有十三經者, 亦幾希矣, 不然則只取名目, 收藏而束庋高閣, 爲蠹鼠所侵蝕而已, 可不惜哉."

42) 李圭景,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緯書附】」, 『五洲衍文長箋散稿』. "愚謹以爲鄭康成漢

이규경은 鄭玄과 朱熹를 경학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은 두 명의 경학가로 평가한다. 이것은 아마도 三禮書와 四書集註로 대표되는 정현과 주희의 유가 경전 주석이 갖는 영향력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십삼경주소』와『사서오경대전』성립의 근간을 제공한 경학가로서 그들을 높이 평가한 것일 것이다. 주자학에 집중하였던 조선의 기본적인 학술 경향을 염두에 둔다면, 주희를 경학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시야에 의해 새로운 이해의 공간이 마련된다. 십삼경이라는 유가 경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역사 속에서 논의되고 공유되었던 유학 본의에 입각한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주자학을 유학 내 하나의 유력한 해석으로 바라봄으로써, 주자학에만 주목하기에 배제될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유학적인 사유에 대해 재성찰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는 기존 이념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지식을 재구성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축적되어온 당대 지식에 대한 박학적 접근 태도가 분명 개입되어 있다.

경학사의 지평 위에서 유가 경전을 바라본다면, 수많은 경학가와 유구한 경학사 속에서 개별 경학가와 문헌 및 사유를 조망하게 된다.『오주연문장전산고』는 그러한 관점을 가능하게 하는 유가 경전과 관련한 상세한 지식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주자학의 유가 경전 이해를 근간으로 학술을 진행해오던 조선 학술에 그에 대한 해석적 시야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오주연문장전산고』에 담긴 유가 경전 관련 지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하나는 경학사를『십삼경주소』와『사서오경대전』을 중심으로 조망하는 시야가 당시 조선에서 제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사서오경대전』중심의 조선적 유가 경전 이해 심화와 그에 대한 비판적 극복의 흐름이 선행되어 있다. 또한 청대 문헌의 유입이 주요 계기로 작동하지만, 거기에는 박학적 지향이라는 조선의 내적 대응 태도가 선재하고 있다. 즉『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은 유

儒之集大成也, 朱夫子宋儒之集大成也. 後儒之準的模楷, 不敢異議者, 惟此二先生也, 以『注疏』之訛謬、『集注』之瑕纇爲非, 而欲廢全書者, 竝不知大義本領者也, 何足道哉."

가 경전에 대한 조선의 내재된 문제의식을 아우르며 조망되어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집적된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8세기 이후 조선 경학의 전개에 있어 조선 학계에서 공유하고 있던 경학 지식과 그에 기반을 한 경학사적 인식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당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을 통해 획득되는 주자학적 경전 해석에 대한 상대화 가능성으로 인해, 수많은 역대 유가 경전 해석들은 유학을 재구성해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학의 사상자원으로 재조명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유가 경전 해석틀의 풍부해짐은 동시대와 이후 전개되는 조선 경학의 다각화 가능성을 예견한다. 이를 통해 보면,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은 조선 후기 경학을 조망하는 데 있어 유가 경전 해석의 다층적 갈래들—예를 들어 주자학적 문제의식의 심화, 주자학의 비판적 극복, 나아가 주자학을 넘어서는 유학에 대한 독법 등—의 경학적 배경을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 분기점이자 기준점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조선 후기 박학 지향의 흐름 위에서 방대한 지식의 축적이라는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유서류 문헌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유가 경전”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서·오경대전』이라는 주자학적 경전 체제 위에서 조선 학계는 주희의 경전 해석 취지와 정론을 확인함으로써 주자학적 문제의식을 전개해나가기도 하며, 그와 더불어 주자학을 포괄하는 유학 본원의 사유를 읽어내기 위해 사서오경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등장한 조선 후기 박학 지향의 흐름은 청대 학술의 유입을 주요 계기로 하여 유가 경전에 대한 경학사적 이해의 지평을 확보해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학사에 대한 인식 위에서 조선 경학까지 조망하고 있는 『오주연문장전산고』의 한 편에 집중하여, 유가 경전의 역대 해석들을 상대화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도출해낸 측면에 주목하였다. 비록 이규경이 조선 경학의 미진함을 짚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을 통해 포착된 경학 지식은 당대 조선의 유가 경전 이해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료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현과 주희를 대등한 두 경학가로 보면서 『십삼경주소』와 『사서・오경대전』을 경학사의 주요 전환점으로 파악하는 시선에는 결과적으로 주자학적 경학이 학술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던 당시 학계에 유학적 사유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낼 수 있는 사상자원의 폭과 양을 넓히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正祖(1752-1800), 丁若鏞(1762-1836), 徐有榘(1764-1845)가 공유했던 十三經으로의 주목[43]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사 인식의 의의를 읽어내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790년 정조는 抄啟文臣 課試로 십삼경을 주제로 하는 策問을 내린다. 경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논쟁점들을 내용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정약용과 서유구의 對策에서는 방대한 지식을 펼쳐낸다.[44] 국왕과 초계문신이 참여한 이 문답에서 그들의 경학에 대한 관심에 經世的 지향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는 漢代와 經學, 그리고 經世之學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입장[45]에서부터 예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것은 儒學의 근본 정신 가운데 하나를 修己治人으로 보는 입장에서 經學을 유학적 理想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바라보는

43)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조. 김문식, 「정조・정약용・서유구의 십삼경 이해」, 『다산학』 제1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44) 이들이 파악하고 있던 경학 지식의 연원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奎章總目』(1781/1805)이다. 『규장총목』의 "經" 항목에는 "總經類, 易類, 書類, 詩類, 春秋類, 禮類, 樂類, 四書類, 小學類"로 분류된 유가 경전 관련 소장 문헌이 목록화되어 있는데, 청대 문헌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주이준의 『경의고』와 서건학의 『경해』, 그리고 고염무의 『일지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경학 지식과 청대 문헌 독서가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규장총목』에 수록된 문헌이 청대 학술, 예를 들어 서건학의 『독례통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을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종천, 「朝鮮 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486-487면 참조.

45) 何耿鏞, 장영백 외 역해, 『經學概說』, 청아출판사, 1992, 18면 참조.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에도 경세적 목표 아래 전개되어온 유가 경전 해석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고염무로 상징되는 청대 학술의 유입에서 조선 후기 경세학적 지향의 학문적 흐름의 단초를 보아내기도 한다.[46] 그러한 측면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인용되어 있는 청대 지식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들이 이규경의 어떠한 지향 속에서 취합된 것인지, 나아가 그 지식들이 당대의 직면한 현실 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진전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담긴 경학 지식은 박학 지향 위에서 청대 학술의 유입을 통해 한데 모인 것이지만, 거기에는 조선 학술계에 선재하고 있던 주자학적 연구의 심화 흐름, 그리고 명대 주자학적 프레임에 갇힌 경전 이해에 대한 비판과 극복으로의 방향성과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비판을 통해 유학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당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경세적 문제의식과의 친연성 역시 흐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경세적 목표 아래 경학에 대한 해석적 지평을 확장해간 조선 후기 사상 흐름과의 연결점에 주목함으로써,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학 지식은 조선 당대의 현실문제에 대한 처방을 지속적으로 경학이라는 학술장 안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조선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46)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顧炎武에 대한 인식과 수용」,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참조. 특히 이 연구에서는 顧炎武 학문의 明代에 대한 절의, 박학 고증적 학문태도 및 經世學으로의 지향이 18세기 이후 조선 학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하면서, 대표적 인물로 성해응을 비롯하여 이덕무, 정약용, 이규경을 언급하고 있다.

▮ 참고문헌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四庫全書總目提要』, 『星湖僿說』, 『星湖僿說類選』, 『星湖先生全集』, 『宋子大全』, 『順菴先生文集』, 『研經齋全集』, 『五洲衍文長箋散稿』, 『日知錄』, 『芝峯類說』, 『靑莊館全書』.

강경현, 「『논어』 "오여회언(吾與回言)"장(章)에 대한 조선의 주자학적 접근」, 『태동고전연구』 제40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8, 113-133면.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 일조각, 1996.

_____,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제2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189-225면.

_____, 「정조・정약용・서유구의 십삼경 이해」, 『다산학』 제1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23-58면.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개념과 소통』 제17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6, 119-157면.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박종천, 「朝鮮 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475-506면.

_____, 「조선시대 類書류 연구방법론과 디지털인문학」, 『한국실학연구』 제35호, 한국실학학회, 2018, 7-48면.

서대원, 「尤庵 宋時烈 先生의 理學 硏究에 대한 一考察—年譜 연구에 중요성」, 『동서철학연구』 제48호, 한국동서철학회, 2008, 155-178면.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顧炎武에 대한 인식과 수용」,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33-62면.

심경호, 「성호의 僿說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제50집, 한국고전번역원, 2017, 245-300면.

윤사순, 「李圭景 實學에 있어서의 傳統思想」, 『아세아연구』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11-231면.

이봉규, 「順菴 安鼎福의 儒敎觀과 經學思想」, 『한국실학연구』 제2호, 한국실학학회, 2000, 55-90면.

이영호・함영대, 「디지털 경전주석학의 모색—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35-66면.

장동우, 「李德懋의 禮 認識과 그 理念的 志向」, 『한국실학연구』 제10호, 한국실학학회, 2005, 191-218면.

張舜徽,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옮김, 『사고전서 이해의 첫걸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동방학지』 제63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1-27면.

주영하 외 지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생활 문화』, 돌베개, 2005.

何耿鏞, 장영백 외 역해, 『經學槪說』, 청아출판사, 1992.

허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한 문한학적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

【Abstract】

Encyclopedic Works in the Joseon Period and its understanding of Confucian Classics
—Focused on *Oju-yeonmun-jangjeon-sango*—

Kang, Kyung-Hyun*

The emergence of Encyclopedic Works in the late Jose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erudition orienta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fucian Classics in understanding the vast knowledge accumulated in East Asia.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Encyclopedic Works of the late Joseon Dynasty, *Oju-yeonmun-jangjeon-sango*, and showed how the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is constructed on the erudition orientation. In addition, I examined what it provided new ways of understanding in Confucian Classics interpretation. The knowledge about Confucian Classics, which is constructed under the purpose of collecting a large amount of knowledge,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of Classics based on the Zhuxi studies as part of the history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By the eyes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history, we are able to relativize Zhuxi's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rough the knowledge about Confucian Classics in the Encyclopedic Works of the early 19th century, *Oju-yeonmun-jangjeon-sango*, we can see a turning point in the late Joseon academia's perception of Confucian Classics.

Keywords: Encyclopedic Works, knowledge, erudition, Confucian Classics, the history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